

김학성의 삶과 음악 활동

남영희*

I. 들머리

김학성(金鶴成, 1911-1958)은 일본 동경에 소재한 동양음악학교(현, 동경 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서양음악인으로 해방 무렵부터 1950년대 부산 음악사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김학성과 같은 우리나라 서양음악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먼저 김인식, 이상준, 현제명 등 근대계몽기와 식민지시대부터 활동한 음악인, 안기영, 김순남 등 월북음악인, 김순애, 임배세 등 근현대 여성 음악인, 김관과 같은 음악평론가에 관한 단독 연구가 이루어졌다.¹⁾ 저명한 음악가의 삶과 음악에 관한 연구는 두말할 나위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1) 박은경 (2000). 한국 최초의 작곡가 김인식 연구. *음악과민족*, 19, 11-37; 윤영해 (2018). 이상준과 근대 한국 음악학의 출발. *한국음악연구*, 63, 269-290; 한국음악문화학회 편집부 (2010). 현제명, 한국 양악사의 큰별. *음악문화학*, 1, 123-194; 오희숙 (2004). 안기영. *음악과민족*, 28,

없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인 서양음악가 뿐만 아니라 근대계몽기 서양음악을 가르친 선교사들에 대한 연구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²⁾

그러나 지역음악인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부산의 경우, 저명한 음악가에 속하는 이상근³⁾과 윤이상 관련 연구를 제외하면 김창배, 고태국, 유신, 오태균, 박이옥 등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연구만 진행된 상황이다.⁴⁾ 대구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태준, 박태원, 권태호, 추애경, 김태술, 권영화에 관한 연구,⁵⁾ 그리고 안중배의 자서전적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정도다.⁶⁾ 대구와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 음악인의 생애와 예술활동을 갈무리한 작업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해방기 부산에는 80여

66-99; 이정분 (2011). 김순남 가곡 <산유화>와 <진달래꽃>. 음악과민족, 41, 217-250; 이견용 (1992). 민족음악의 선각자 김순남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8, 225-237; 송방송, 노동은 (1992). 한국양악사의 큰별, 김순남 연구. 김순남 그 삶과 예술. 민족음악의 이해, 2, 319-325.

- 2) 문백란 (2019). 연희전문학교의 음악활동과 선교사 교원의 역할-1930년대 중반까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89, 301-325; 허지연 (2018). 여성선교사의 고등음악교육과 한국 여성의 새로운 정체성 찾기. 이화음악논집, 22(1), 1-43; 김사랑 (2017). 내한 여성선교사들의 음악활동과 청각적 근대화: 1885-1940년까지 미북장로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부; 이영화 (2014). 19세기 말 서양선교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 음악교육의 동향고찰. 음악과 민족, 47, 169-213.
- 3) 우혜언 (2011). 작곡가 이상근의 작품세계-그의 미학관과 창작관을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41, 17-40; 홍정수 (2010). 한국음악의 관점(5): 이상근의 "현대" 개념. 음악과 민족, 40, 11-45; 하순봉 (2013). 이상근의 「디베르티멘토 op.35」 분석. 음악과 민족, 45, 51-69; 조선우 (2004). 향신화와 이상근 그리고 '문화도시 부산'. 음악과 비평, 3(4), 32-35; 김창욱 (1998). (음악 속의 부산) 아름답고 슬픈 오페라 「부산성 사람들」. 예술부산, 5, 40-43.
- 4) 윤성원 (2004). 부산음악인, 김창배 연구. 음악과민족, 28, 83-104; 김윤선 (2004). 테너 고태국 선생의 삶과 음악. 음악과민족, 28, 63-81; 신설령 (2004). 유신 음악비평 연구. 음악과민족, 28, 105-126; 주은경 (2004). 부산교향악운동의 선구자, 오태균. 음악과민족, 28, 127-145; 김원명 (2002). 박이옥의 음악세계와 부산 음악문화에 끼친 그의영향. 음악과민족, 23, 118-139.
- 5) 한국음악문헌학회 편집부 (2010). 박태원, 대구지역 혼성합창의 창시자. 음악문헌학, 1, 9-32; 한국음악문헌학회 편집부 (2010). 박태준, 한국합창운동의 선구자. 음악문헌학, 1, 77-122; 한국음악문헌학회 편집부 (2010). 권태호, 독일예술가곡의 파종자. 음악문헌학, 1, 195-248; 한국음악문헌학회 편집부 (2010). 추애경, 김태술, 권영화, 그들은 누구인가?. 음악문헌학, 1, 249-288.
- 6) 안중배 (2018). 안중배의 음악 삶. 음악문헌학, 9, 145-212.

명의 음악인이 활동했지만 그중 대부분은 약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지역음악인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까닭은 연구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지역에 남아있는 사료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지역의 음악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사료의 보관을 통해 지역음악인의 삶과 음악 활동을 재조명하는 일은 비단 음악가 개인의 성과에 대한 조명뿐만 아니라 지역 음악사회의 모습을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식민지시대부터 해방기 이후 부산에는 일본에서 유학을 마친 전문음악인들이 다수 활동했다. 동양음악학교 출신의 김학성, 금수현, 유신, 김창배, 고태국, 김호민, 동경 제국고등음악학교 출신의 최덕해, 동경고등음악학원(현 쿤이타치 음대) 출신의 배도순, 하규한, 김점덕, 오사카 음악학교 출신의 윤이상, 동경 메이지대학 상과 출신의 강수범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 일부는 출신이 부산경남 지역인 경우도 있지만 김천, 해남, 청도, 고령 등 다른 지역 출신이면서 부산에 정착한 인물도 많다.⁷⁾ 그중 김학성은 바이올린 연주자, 연주단체 설립자, 음악 전문교육기관 설립자 등 다양한 층위에서 활동했다.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다수의 음악회에 출연하는 한편 꾸준히 독주회를 개최했다. 해방 이후 부산지역 최초의 관현악단인 부산관현악단을 창설하여 관현악운동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 전문교육기관 부산음악학교를 설립하여 음악 후진 양성을 도모했으며, 음악교재를 편찬하여 음악 교양의 확산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9년 제2회 부산문화상에 추서되었다.

김학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제갈삼의 저서가 대표적이다.⁸⁾ 그는 부산의 원로음악인을 비롯한 주변 인물과 유족의 인터뷰, 유품으로 남겨진 사진과 팸플릿 등을 종합하여 김학성의 삶의 내력을 풍부하게 조명하였다. 이전까지 전혀

7) 부산경남 지역 출신은 김해 금수현, 김호민, 배도순, 거창 하규한, 통영 윤이상, 의령 김점덕, 합천 강수범이 있으며, 김학성은 김천, 유신은 해남, 김창배는 청도, 고태국은 고령 출신이다.

8) 제갈삼 (2004). 초창기 부산음악사. 부산: 세종출판사; 제갈삼 (2006). 잊을 수 없는 음악인과 음악회. 부산: 세종출판사; 제갈삼 (2007). 부산: 경남지역의 음악문화유산과 그 궤적. 부산: 세종출판사.

기록된 바가 없었던 김학성의 삶을 재구성하여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추정하여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었으므로 후속 연구의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연주자, 교육자, 연주단체 설립자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진 김학성의 음악 활동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였고 누락된 정보나 사실과 다른 정보도 많다. 김학성이 관여하거나 주도한 여러 단체 및 기관의 명칭이 제시되기는 했으나 내력이나 활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지 못했으며, 연관성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또한 김학성의 연주 레퍼토리의 특성이나 평가, 음악적 지향점 등에 관해서는 분석하지 못했다. 김학성의 삶과 음악활동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셈이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폭넓게 보강하여 부산 음악인 김학성의 삶과 음악 활동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그의 음악적 지향점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식민지시대에 발간된 『부산일보』(일문)를 비롯해 해방기 『부산일보』(국문), 『민주중보』, 『부산신문』, 『문예신문』, 『대중신문』, 『음악주보』 등 지역에서 발간한 매체,⁹⁾ 김학성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부산 음악인의 회고와 자서전, 관찬 자료, 학교 자료 등을 두루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 음악인 김학성의 음악 활동을 재조명하는 한편, 김학성이 활동한 식민지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부산지역 음악사회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II. 김학성의 음악적 삶과 평가

1. 김학성 생애의 재구

김학성의 생애에 관한 기록은 제갈삼의 저서에서 충실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유족으로부터 김학성의 생애에 관한 간략한 메모를 발견했지만, 여

9) 그중 『문예신문』, 『대중신문』, 『음악주보』는 지금껏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매체다.

기 적힌 연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장녀 김견자(金絹子), 삼남 김준배(金俊培), 이종 처제 안정숙(安貞淑), 부산의 원로 음악인 박형태와의 인터뷰, 유족이 보관 중인 기록과 사진, 공연 팸플릿, 노동은의 연구¹⁰⁾ 등을 토대로 근거를 제시하였다.¹¹⁾ 제갈삼의 연구에 따르면, 김학성은 1911년 경북 김천에서 위로 두 형과 누이 하나를 둔 막내로 태어났다. 부친은 착실한 선비형 인품을 지닌 분으로 한학과 주역에 대한 교양을 갖추고 있었으며, 법원 서기로 종사했다. 제갈삼은 한복 두루마기 차림으로 찍은 경북고등보통학교 졸업 사진을 확인하고 그 시기를 1932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에서 부산으로 오게 된 시기와 계기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삼촌을 따라” 부산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1932년 이후부터 1938년경 동양음악학교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부산에서 지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동양음악학교를 졸업한 금수현은 “부산 출신의 김학성이 영화관에서 영화 장면에 따라 깡깡거리다가 (일본에 유학-필자)왔다”고 회고하고 있으며,¹²⁾ 안정숙¹³⁾은 김학성이 바이올린을 독학했다고 전한다. 김학성이 김천에서 음악을 어느 정도 수학했는지, 유학 전 부산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음악을 접하고 배우게 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당시 부산은 개항지였던 덕분에 근대 문물의 유입이 빠르고 폭넓게 진행된 지역이었다. 금수현의 기록과 안정숙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영화와 극장, 레코드와 방송 등 부산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은 김학성의 음악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성은 1936년 노소전(盧少全)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결혼 당시 그는 부산 향서(港西)교회 성가대 지휘자였으며 노소전은 성가대원이었다고 전한

10) 노동은 (1989). 한국 민족음악 현대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1) 제갈삼 (2004). 앞의 책, 34-36, 389-390; 제갈삼 (2006) 앞의 책, 73.

12) 금수현 (1989), 앞의 책, 37.

13) 안정숙은 향서교회 설립자 가운데 한 명인 안명환(安命煥)의 딸이자 김학성의 이종 처제다. 동래일신여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해방기에 피아니스트와 성악가로 활동하였다. 안정숙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학비와 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전해진다. 제갈삼 (2004). 앞의 책, 390.

다. 어떤 이유로 부산에 정착하게 되었든 간에 부산 정착 이후 이내 음악가로서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으며 그 기반은 교회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부산에는 전문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1937년 장남 김준오¹⁴⁾가 태어난 후 만학도로 동경 유학길에 오른다. 동양음악학교(東洋音樂學校)¹⁵⁾ 입학 시기는 1938년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안정숙의 재정적 도움이 컸다. 동양음악학교는 예과 1년, 본과 3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학성은 예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과에 입학하였다. 창씨명은 가네코 사부리(金子三浪)였으며, 유학 당시 일본 음악문화협회 연주자협회 회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1년 3월, 김학성은 동양음악학교를 졸업한다.¹⁶⁾ 유족인 삼남 김준배의 기억으로는 졸업 후 “돈을 벌기 위해 만주로 갔다”고 하는데 동경을 떠난 김학성은 일정 기간 북경교향악단에서 연주활동을 하였다. 제갈삼은 유품으로 남겨진 북경교향악단의 제6회 공연 팸플릿을 토대로 그 시기를 1942년 6월 무렵까지로 보고 있다. 이 팸플릿에 따르면, 공연은 연도 표시 없이 6월 13일에 개최되었는데, 연주곡목 중 한 곡인 “다카다[高田三郎]의 합창곡 <환상곡과 둔주곡(遁走曲)¹⁷⁾>”이 “민국(民國) 30년 11월 15일 일본 동경에서 초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⁸⁾ 그러면 김학성이 북경에서 귀국한 시점은 1942년 말에서 1943년 초로 추정할 수 있다.¹⁹⁾ 귀국 후 어디에 정착했는지는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무렵부터 김학성이 부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한 점, 그리고 1944년 차남 김준철이 태어난 점을 미루어 볼 때 부산에 거점을 두고 서울에서 활동을 병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4) 부산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역임하고 1999년 7월 별세하였다.

15) 1907년 설립한 동양음악학교(東洋音樂學校)는 1911년 동양음악전문학교(東洋音樂專門學校)를 거쳐 1969년 동경음악대학(東京音樂大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사립학교이며 현재 이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16) 제갈삼은 이를 학교 측에 확인했다고 한다. 제갈삼 (2004). 앞의 책, 388.

17) 푸기(fuga)를 뜻한다.

18)民国 1년은 중화민국의 건국이 선포된 1912년이다.

19) 제갈삼 (2004). 앞의 책, 35.

김학성은 1942~1943년 무렵부터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²⁰⁾ 그는 “서구청 건너편”에서 ‘바이올린의 집’이라는 교습소를 운영했으며 문하생을 중심으로 약 20명 규모의 현악합주단을 꾸렸다. 또한 일본인 우츠노미야 고조[宇都宮幸三]가 지휘자로 활동하며 선무공작을 담당했던 1관 편성의 방송관현악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²¹⁾ 1943년경 부산좌(현 부산극장)에서 첫 독주회를 개최했다.²²⁾ 같은 시기 김학성은 경성후생실내악단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기간은 1944년 전후 얼마간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에는 고려교향악단에서 잠시 활동하는데, 계정식, 김생려, 김성태 등 경성후생실내악단 구성원 중 상당수가 이 단체에서 활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김학성 역시 고려교향악단 단원으로 편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부터 1958년 별세하기까지 김학성의 음악 활동은 바이올리니스트, 연주단체 대표, 강사, 중등학교 교사 등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주된 활동 무대는 부산이었다. 특히 해방기에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김학성의 음악 활동은 재정난과 한국전쟁 발발로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대단히 의미있고 선구적인 시도들이었다. 그중 하나가 연주단체의 결성이다. 김학성은 1947년 부산관현악단을 설립하는데, 해방 이후 설립된 부산지역 최초의 관현악단이다. 창단 당시 17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회의 정기연주회와 6회의 순회연주회를 개최했다. 1948년 결성한 부산현악사중주단 역시 부산 최초의 현악사중주단이다. 음악교육과 전문음악인 양성에도 기여했다. 1948년 김학성이 설립한 부산음악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전문음악인의 체계적인 양성을 지향했다. 이 기관은 훗날 부산음악전문학교로 발전한다. 김학성은 음악교재의 발간에도 관여했다. 1948년 경남음악교육연구회에서 『중등가곡집』을 발간할 때 편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지역 문인 이승자의 시에 붙인 <청춘의 노

20) 김학성의 음악활동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21) 박형태 (1986). 음악계의 뿌리와 맥. 산어울, 7. 부산: 부산전문대학, 35-36;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1). 부산시사, 4, 288-289. 후자는 전자의 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2) 제갈삼 (2004). 앞의 책, 32-35.

래>를 작곡하여 수록했다. 같은 해 『특선가곡집』을 펴내기도 하였으며,²³⁾ 1950년에는 단독으로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을 편찬했다.

한국전쟁기에는 부산관현악단을 피란 온 육군군악학교 연주대(육군본부 군악대)와 결합시켰으며,²⁴⁾ 전후에는 극장문화협의회 음악분과 위원장,²⁵⁾ 문화회관 설립 기성회 활동(1955), 경남음악연구회 부회장(1956)으로 활동하는 한편, 한글문예사에서 발행한 한글전용 순문학 예술지인 계간 『한글문예』에 파가니니(N.Paganini)에 관한 글을 수록하기도 했다.²⁶⁾ 음악뿐만 아니라 부산의 지역 문화계에 일정한 입지를 구축한 셈이다.

김학성은 1948년 10월 무렵 “주마담(走馬痰)이라는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고 한다.²⁷⁾ 주마담은 유주담(流注痰)이라고도 하는데 몸의 이곳저곳이 옥신거리고 아프며 때로는 부어오르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기악 연주자들은 불편한 자세로 악기를 연습 연주하면서 상시 긴장감을 지니고 있어 통증을 비롯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이다. 김학성 역시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58년 2월 25일 향년 48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장례식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남지부장(葬)으로 부산역 광장에서 집행되었으며 음악인 고태국과 시인 홍두표의 조사가 낭송되었다고 전한다. 이듬해인 1959년 1월 9일 김학성은 부산의 음악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회 부산시 문화상에 추서되었다.

2. 김학성에 대한 기록과 평가

부산의 원로 음악인 박형태는 김학성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23) 신간소개. (1948. 2. 1). 음악주보, 57, 4.

24) 제갈삼 (2006). 앞의 책, 72-73.

25) 소식. (1955. 2. 9). 부산일보, 2.

26) 계간 한글문예 발간. (1956. 1. 5). 부산일보, 4; 김학성 (1956. 1. 20). 세계최고의 바이얼니스트 Paganini의 얘기, 한글문예. 창간호, 부산: 한글문예사, 29-30.

27) 예술소식. (1948. 10. 25). 음악주보, 68, 1; 인사. (1948. 11. 25). 음악주보, 70, 4.

선비형에다 나이를 가리지 않고 함께 즐기며 결코 남을 비방할 줄 모르면서도 개성이 강한 김학성(제2회 부산시 문화상 수상)은 모든 부산 예술인과 음악 동호인의 친근한 벗일 뿐만 아니라 서화에도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기도 했다. 그는 부산에서만 1941년부터 1955년까지 4회의 독주회를 열어 식을 줄 모르는 정열을 보여주었다.²⁸⁾

인용문에 따르면, 김학성은 “선비형에다 나이를 가리지 않으며 남을 비방하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였다. 일례로, 1946년 12월 동광국민학교에서 열린 전재동포구제음악회²⁹⁾에 김학성이 특별 출연한다. 이 공연의 출연자는 모두 초등학생, 중·고교생, 대학생이며, 전문음악인은 김학성이 유일했다. 1949년 부산관현악단의 쇄신 작업 당시의 상황에서도 김학성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재정 문제로 큰 곤란을 겪고 있던 부산관현악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때 김학성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단체였음에도 주요 운영진에서 물러나 기술위원 중 한 사람으로 자리한다.³⁰⁾ 1949년 부산음악전문학교의 쇄신과정에서도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 그는 대표 자리를 홍일파에게 넘겨주고 물러난다.³¹⁾ 또한 한국전쟁기 부산관현악단을 육군군악학교 연주대와 결합시킨 일은 “유능한 젊은 연주자들을 무질서한 거리 징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였으며, “지휘봉을 당시 육군군악학교 교장 김판기 소령에게 맡기고 자신은 악장 자리에 앉았다”³²⁾는 사실에서 자리나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선배 세대로서의 역할에 대한 김학성의 인식과 인본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지역음악인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이다. 사회문제와 참여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일본에서 재일동포 학교 폐쇄령이 내려졌을 때 부산음악학교에서는 이에 반대하여 반일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결의

28) 박형태 (1986). 앞의 글, 37.

29) 부산수산과학대학 학생회 주최, 경상남도 후생과, 후생사업협회, 부산일보, 민주중보사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전재동포구제음악회. (1946. 12. 22). 공연팸플릿, 1.

30) 부산관현악단 진용강화 재출발. (1948. 10. 25). 음악주보, 69, 1.

31) 질식상태에 있는 부산악계. (1949. 7. 25). 음악주보, 84, 1.

32) 제갈삼 (2006), 앞의 책, 72-73.

문을 발표한 바 있다.³³⁾ 부산에 문화회관을 설립하기 위해 중지를 모았을 때도 기성회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⁴⁾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김학성이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 과도 깊은 교분을 나누었다는 점이다. 김학성 사후에 부산의 무용가 김향춘이 그를 추모하는 발레 공연을 아폴로 감상실에서 3일 동안 열었다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해 준다.³⁵⁾ 아울러 그림에도 “탁월한 솜씨”를 지녔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³⁶⁾

한편, 음악가로서의 근성은 “개성이 강”하고 “식을 줄 모르는 정열”을 지녔다고 평한다. 안정숙은 제갈삼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학성이 유학을 떠나기 전 독학으로 바이올린을 배우던 모습을 보고 “재능이 우수”하고 “음악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간절”했다고 증언한 사실³⁷⁾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김학성은 생애 내내 연주 활동, 연주단체 설립과 운영, 전문음악교육기관 설립과 운영, 음악교재 발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쉼 없이 “정열”적인 활동을 펼쳤다. 다음의 세평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학성씨(5) - 제금가의 씨의 얼굴에서는 쓰디쓴 인생의 기록을 단숨에 받아들이 수가 있다 그는 웃는 모습에 울음이 있고 울음 속에서도 묘한 웃음을 가진 ‘판토마임’의 선수다. 씨는 15년 전 김생려 씨와 함께 후생악단을 조직하여 팔도강산을 역방한 노장으로 부산에 있어서도 일찍 부산 관현악단의 조직과 부산 음악 전문학교의 교장 등 명예로운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이런 것이 제대로 궤도에 오르기 전에 해산의 고통을 맛보지 않을 수

33) 이 학교는 같은 해 4월 김학성이 설립한 학교다. 반일투쟁위원회 조직코 부산음악학교도 쫓기. (1948. 5. 6). 부산신문, 2.

34) 시민음악회 개회. (1955. 1. 30). 부산일보, 4.

35) 음악비화한 음악애호가들의 음악적 인생 체험 21-김학성씨 타계와 김향춘씨 추모공연. (1989. 10. 28). 부산일보, 9.

36) 제갈삼은 김학성이 연필 세밀화로 그린 모차르트의 초상화를 박형태가 보관하고 있다고 하며, 장녀 김견자는 미술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한다. 제갈삼 (2004), 앞의 책, 399.

37) 제갈삼 (2004), 앞의 책, 390.

없었다. 이런 쓰라린 경험을 토대로 씨는 수차 독주회를 통하여 자기의 울분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의 씨의 연주에서는 생기도 없고 의욕도 없이 그냥 옛날의 관록만으로서 지탱하려는 타협이 곧장 늘어만 가서 웃지도 울지도 못할 씨의 얼굴의 표정과 흡사하게 되는 것이다. 또 씨는 국민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연달아 있는 자제의 학부형 노릇과 십 수명의 식구의 세대주인자라 항상 분주하게 서둘지 않으면 백여낼 수가 없게 되어 동서 가릴 것 없이 씨의 정력이 마구 흩어지는 탓인지도 모른다. 요즘은 주로 구라파의 음곡보다 우리나라의 민요에 관심을 많이 두어 우리 음악을 토대로서 음악계몽과 아울러 민요의 품격을 높일려고 지향하는 모습이 그의 황혼을 장식하는 것 같다. 씨의 얼굴에는 많은 숨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야릇한 표정과 묘한 선의 움직임에 따라 올라가면 다들 씨에게 포로가 되고 만다. 그리고 약주값이나 마련되면 씨에게서 악단 ‘에피소트’는 무진장으로 들을 수 있다. 씨는 부산 악단을 위해 노력한 분이며 잊어버릴 수 없는 음악인의 한 사람이다.³⁸⁾

인용문에서는 김학성이 여러 가지를 열심히 시도했음에도 “제대로 궤도에 오르기 전에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고 본다. 김학성이 활동한 시기, 즉 식민지 시대 말기부터 해방기, 그리고 한국전쟁기와 전후 얼마간의 시기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굴곡진 시기로 사회 기반이나 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했던 때다. 더욱이 문화예술 분야에 속하는 음악은 소위 먹고사는 문제와는 별개의 영역으로 치부되기 마련이므로 그 시절에 음악적 실천으로 결실을 맺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학성은 자신이 동경과 북경, 서울 등 나라 안팎에서 취한 음악적 경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예의 “식을 줄 모르는 정열”은 김학성의 본성이기도 하거니와 음악가로서의 뚜렷한 정체성, 그리고 지역 음악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의 사명감이 추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록 김학성이 펼친 여러 활동이 당대에는 반석이 오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후 부산음악사회의 발전에 적지 않은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38) 부산악단 점경(點景) 상-연주단체와 연주인 푸로필. (1956. 2. 22). 부산일보, 4.

인용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은 김학성이 처한 현실 즉, 대가족의 식솔을 거느린 “세대주”라는 사실이 예술가의 “정력을 마구 흠어”지게 하여 생기와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당시 부산에서 음악가들에게 정규 직장은 중등학교 정도였으며, 전문 음악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란 상당히 버거웠을 것이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예술가의 삶의 조건이기도 하다.

김학성의 연주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유신은 김학성의 꾸준한 독주회 개최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월등한 기교는 아니”라 평가하고 있다.³⁹⁾ 김학성이 바이올린 독주로 즐겨 연주한 작품은 사라사테 <찌고이네르바이젠>, 헨리 비숍 경 <즐거운 나의 집>, 슈만 <어린이의 정경> 중 “트로이메라이”, 구노 <세레나데> 등이며, 소나타로는 1949년 9월 실내악을 주로 한 음악회에서 연주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24번, 1957년 3월 김천애와의 2인 음악회에서 연주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 <봄>을 들 수 있다. <찌고이네르바이젠>과 소나타를 제외하면 대개 소품 위주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협주곡을 연주하지 않은 것은 협주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관현악단이 부재하거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해도 김학성의 연주활동 정도를 고려할 때 레퍼토리의 폭은 넓지 않다. 이런 점에서는 유신의 평가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김학성이 동양음악학교 예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과에 입학한 점, 유학 시절 급여와 수당을 지급한 송죽(松竹)[쇼치쿠] 관현악단과 동보(東寶)[토호] P.C.L. 관현악단에서 활동했다는 점, 경성후생실내악단 및 고려교향악단에서 유수의 음악인들과 함께 연주 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반론의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 김학성의 연주에 대한 몇몇 평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박지료씨의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24번이 비교적 무난했으나

39) 유신 (1996). 해방 후 이십년의 부산음악. 박원표 엮음. 개항구십년. 부산: 태화출판사, 320.

만 연주는 좀 더 순직한 정진이 기대되었다.⁴⁰⁾

② 제금 연주를 생활의 전체로 알고 있는 씨의 진지한 태도에는 청중들도 음악을 떠나서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빠른 ‘팻세-지(악절을 뜻하는 passage-필자)’의 연습 부족과 곳곳의 음정 불안전은 씨의 노련한 연주 태도로서 잘 ‘캄프라-쥬(위장을 뜻하는 camouflage-필자)’되었다.⁴¹⁾

③ 김학성 씨의 소나타 C장조의 연주는 좋았다. 단 ‘보오이(활의 작용을 뜻하는 bowing-필자)’에 유의하여 음을 곱게 내어 주었으면 하는 감을 느꼈다.⁴²⁾

④ 음악에서는 ‘피아노’가 없어서 김학성 씨가 무반주로 그야말로 ‘바이올린’의 독주를 하였으나 순련(숙련 또는 훈련으로 추정-필자)된 솜씨를 보여주었다.⁴³⁾

⑤ 요즘의 씨의 연주에서는 생기도 없고 의욕도 없이 그냥 옛날의 관록만으로서 지탱하려는 타협이 곧장 늘어만 가서 (중략) 요즘은 주로 구라파의 음곡보다 우리나라의 민요에 관심을 많이 두어 우리 음악을 토대로서 음악계몽과 아울러 민요의 품격을 높일려고 지향하는 모습이 그의 황혼을 장식하는 것 같다.⁴⁴⁾

⑥ 먼 길에 객고를 무릅쓰고 지방 문화에 이바지한 김천애씨와 ‘바이올린’이 ‘앵금통(양금통-필자)’이니 약장사의 선전도구로 알던 시절에 대중과 더불어 꾸준히 싸워온 김학성씨의 노래에 살겠다고 연주로 통한 그 의욕과 정열이 얼마나 장한가. (중략) 한편 김학성씨의 독주곡은 **가급적 암보를 해서 탄력성 있는 연주가** 요망된다. 음악에 있어 방송이나 녹음 재생은 기구를 통하는 가운데 연주가의 표현되는 음상이 그대로 재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기를 보면서 듣는 실음이 예술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연의 감상 심리란 곡상에 따른 연주자들의 모든 ‘모오순’이 그 흘러나오

40) K엘 생 (1949. 9. 18). 음악회 참관기. 자유민보, 2.

41) 시민음악회 개최. (1955. 1. 30). 부산일보, 4.

42) 모오찰트 200주년 기념음악회를 듣고 (1956. 2. 1). 부산일보, 4.

43) 3·1 예술제 춘감. (1956. 3. 11). 부산일보, 4.

44) 부산악단 점경 상-연주단체와 연주인 푸로필. (1956. 2. 22), 부산일보, 4.

는 음상과 일치하여야만 한결 감상의 정감이 환기되는 것이다. 때문에 보표에 구속을 받지 안 해야 자유로운 표현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음악관의 개성이 뚜렷이 서지 않을가 생각된다. 몇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감상 대상을 위주로 선곡을 하여 음악회의 성격을 확실히 할 것 2인이면 질량으로 감상인의 기대에 보람이 있게 할 것, 연구가는 회를 거듭할수록 ‘레퍼트리(repertoire-필자)’를 바꾸어 ‘펜(fan-필자)’들의 신뢰를 꺾지 말자는 것이다.(진하게-필자)⁴⁵⁾

인용문 ①은 1949년 9월에 열린 ‘실내악을 주로 한 음악연주회’에서 김학성이 박지로의 반주로 3악장으로 이루어진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24번 전곡을 연주한 다음 나온 평이다. 부산미국공보원 주최로 열린 이 연주회는 부산에서 해방 후 처음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실내악곡으로만 구성한 특별한 시도였다. 배도순, 윤이상, 백경준, 김광수 등 당시 연주력을 인정받고 있던 현악 연주자들이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 <죽음과 소녀> 등 실내악곡을 연주했다. 단편적이긴 하나, 다른 연주는 “좀 더 순직한 정진”을 요했지만 김학성의 연주는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 ②는 1955년 제1회 시민음악회를 마친 후 나온 평으로 연습이 부족해 빠른 패시지를 완벽하게 연주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노련하게 보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6년 모차르트 탄생 200주년 기념공연 후의 연주평인 인용문 ③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활의 안정적·지속적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같은 해 개최한 3·1예술제 이후 나온 인용문 ④는 매우 단편적인 평가긴 하나, 무반주 연주로 “순련된 솜씨”를 보여주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인용문 ⑤ 역시 단편적이지만 연습 부족을 “관록”으로 지탱하려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평가들을 종합해보면, 김학성은 전반적으로 연습량이 부족하여 탁월한 연주력을 안정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테크닉과 관록에 의한 노련함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 ⑥은 1957년 소프라노 김천애와의 2인 음악회 후 나온 평이다. 바이올린이 “악장사의 선전

45) 행동하는 음악가 2인 음악회를 듣고 (1957. 3. 17), 부산일보, 4.

도구”로 여겨지던 시절 김학성의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암보를 통해 “탄력성 있는 연주”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악보를 보면서 연주할 경우 “보표에 구애를 받아” 자유로운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연주자의 암보는 고도의 기교를 과시하면서 자유롭고 드라마틱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식이며, 연주자가 연주에 임하는 태도와 실력을 상징하면서 당연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저명하고 실력있는 연주자라도 암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연주 상황이나 연주자의 컨디션이 가변적으로 집중력이 깨질 경우 암기한 악보가 무력화될 수 있으며 작곡가가 표기한 악상기호와 세심한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주회에서 김학성이 “감상의 정감”을 살리지 못한 이유는 비단 암보를 하지 않아서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김학성은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 많은 횃수의 연주를 감당해야 했을 것이며, 이 연주회 이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지병으로 세상을 등져야 할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못했을 것이다. 이점에서는 유신의 “월등한 기교는 아니”라는 평가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또한 레퍼토리를 확대하여 “팬”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지적은 유효한 편이다. 김학성이 여러 연주회에서 선보인 레퍼토리는 연주 횃수와 양에 비해 다소 편협하며 중복적이다.

그러나 인용문 ②와 ⑤에서 음악에 임하는 김학성의 남다른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바이올린 연주를 “생활의 전체”로 여기고 “진지한 태도”로 청중 앞에 섰다. 그러나 완벽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하기보다는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 연주하고자 했다. 기악 연주자가 독주곡을 반주 없이 연주하기란 부담감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아노가 없”는 상황에 맞추어 무반주로 곡을 연주하고 “순련된 솜씨”를 보여준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레퍼토리로 서구의 유명한 작품만 고집하기보다 우리 민요에 관심을 두었으며, 민요를 통해 음악을 향유하는 인구를 늘려나가는 한편 민요의 “품격” 제고를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음악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월등한 기교” 못지않게 청중을 깊이 “감명”시킬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무렵 부산의 악단에 관한 시평에서는 “‘부산음악가협회’의 커다란 간판이 있으나 실제로 연주할 수 있는 분으로서는 제금에 김학성씨 정도⁴⁶⁾로 언급되었다. 유신의 회고는 김학성 사후 8년가량 시간이 지난 1966년에 작성된 것이지만, 1956년의 이 시평은 당시 김학성의 부산 음악사회에서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김학성의 음악활동과 음악사적 복원

1. 연주단체 활동의 변전: 부산관현악단 설립에 이르는 길

김학성은 동경 유학 시절, 송죽(松竹)[쇼치쿠]관현악단과 동보(東寶)[토호] P.C.L.관현악단에서 활동하였다. 제갈삼은 이 두 악단을 “교향악단이라기 보다는 관현악단이라 할 수 있고 <송죽>과 <동보>는 당시 일본의 2대 영화사의 이름이고 각각 소속된 관현악단을 말하는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송죽[쇼치쿠]은 가부키를 비롯한 일본 전통 공연을 상연하는 극장과 관련해 1895년 설립된 회사다. 1920년 영화산업에 관여하면서 쇼치쿠 키네마 합명사를 설립하였으며, 1931년 쇼치쿠 흥행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⁴⁷⁾ 이 무렵 쇼치쿠 소녀극단(SSK)을 창단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1937년 아사쿠사[淺草] 국제극장을 개관하면서 쇼치쿠 소녀극단 제1회 공연을 개최했다. 송죽 관현악단은 이와 관련한 관현악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기 부산의 대표적인 음악가 금수현 역시 동양음악학교 출신이며, 송죽가극부에서 “극과 연출을 공부하고 많은 영화를 봤”다고 한다.⁴⁸⁾ 금수현은 국제극장과 “쇼츠쿠(쇼치쿠와 동일한 기관을 지칭-필자)”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46) 부산악단 점경 상-연주단체와 연주인 푸로필. (1956. 2. 22), 부산일보, 4.

47) 지금은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 쇼치쿠 주식회사(Shochiku Co., Ltd)로 운영 중이다.

<https://www.shochiku.co.jp/accessed> 2021.06.10.

48) 금수현 (1989). 앞의 책, 123-124.

국제극장이라는 것은 신축한 맘모스 공연장이었다. 외모는 별것 아니지만 좌석은 무려 7천석, 객석쪽만큼 큰 무대와 부속건물이 뒤쪽에 자리잡았다. 이 부설건물에는 큼직한 무대와 수백 벌이 들어 있는 의상실, 무대장치실, 조정실이 있고, 뒤쪽의 윗층에는 합창단, 오케스트라 연습실, 발레실, 식당 등이 완전히 갖춰지고 있었다. 일본의 당시 흥행계는 두 개의 산맥이 있었는데 하나는 토오호(東寶) 계고 또하나는 쇼츠쿠(松竹) 계로 영화제작사 연에서 소녀극단 호가쿠(邦樂, 우리 국악)쇼 등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국제극장은 이 쇼츠쿠계다. (중략) 매일 정한 시간에 오페라의 합창곡들을 연습하고 있었다. 이밖에 무대의 매너를 위해 발레 기본도 하루에 한두 시간을 했다. (중략) 그야말로 월급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출연 날은 수당도 주니 나쁠 것은 없다.⁴⁹⁾

인용문에 따르면 쇼치쿠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오페라를 연습하였으며 월급과 수당을 지급하였다. 김학성 역시 관현악단 소속으로 매일 연습에 임하며 월급과 수당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성은 쇼치쿠 외에도 동보 P.C.L. 관현악단에도 참여했다. 당시 일본의 “흥행계 두 개의 산맥”에 모두 관여한 셈이다. 동보 [토호] 는 1936년 설립한 영화배급사이며, 1937년 후반작업소인 동경의 사진화학연구소, PCL영화제작소(Photo Chemical Lab), 경도(京都)[쿄토]의 JO스튜디오와 합병하여 동보영화주식회사(東寶映畫株式會社)가 되었다.⁵⁰⁾ 김학성이 활동한 P.C.L.관현악단은 이 회사와 관련한 단체로 추정된다. 이 두 단체의 성격이나 그곳에서의 연주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급여와 수당을 지급한 단체였다는 점에서 김학성은 연주력을 인정받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41년 동양음악학교 졸업 후 1942년경까지 “북경교향악단”에서 활동했다. 이때 북경교향악단은 어떤 단체인지 알 수 없으나, 중국의 교향악단이라

49) 위의 책, 59-60.

50) 지금은 동보영화주식회사로 운영중이며, <고질라>, <짱구는 못말려>, <도라에몽>, <극장판 포켓 몬스타>, <원령공주>, <명탐정 코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일본의 유명 만화영화의 제작과 배포에 관여하고 있다. <https://ja.wikipedia.org/wiki/東宝映画> /accessed 2021. 6.10.

기보다는 일본이 인수한 북경 소재 교향악단으로 보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다. 중일전쟁기인 이때 상하이심포니오케스트라[上海交響樂團]도 일본이 인수하였으며,⁵¹⁾ 1942년으로 추정되는 해⁵²⁾의 6월 13일자 공연 팸플릿에 연주 곡목으로 “다카다 사부로[高田三郎]의 곡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학성은 1942년 말에서 1943년 초 무렵 북경에서 돌아와 부산방송관현악단에서 활동한다. 부산방송관현악단에 관해서는 다음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① 당시 부산방송국에는 1관 편성의 관현악단이 조직되어 방송을 통한 선무공작에 이용됐는데, 이것이 부산에 있어서의 관현악단의 효시이다. 그 구성원은 지휘에 일본인 우쓰미야(우츠노미야 고조의 잘못-필자), 악장 김학성, 현악에 백경준, 전성태, 임창규(임문규의 잘못으로 추정-필자), 이병우, 윤이상 등에 관악에 김기영, 한이영(함이영의 잘못으로 추정-필자), 그 밖에 일본인 주자 등 20명 정도였다.⁵³⁾

② 부산방송관현악단은 제국주의 말기적 현상에서 조직된 일종의 대(對) 식민지국민 선무공작 정책에 의한 산물이었다는 사실이 동 악단 창단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긴 하겠으나, 그들의 활동은 의욕적이었다. 당시의 악단 구성은, 지휘에 일본인 우쓰미야, 악장에 김학성, 현악에 백경준, 전성태, 임문규, 이병우, 윤이상 등이며, 관악에 김기영, 한이영 등 20여 명이였다.⁵⁴⁾

인용문 ①은 부산의 원로 음악인 박형태가 1986년에 작성한 것이며, 인용문 ②는 1991년에 작성된 공식 기록이다. 제갈삼은 훗날 “박형태가 쓴 논문에 착오로 잘못 기록한 것을 시사(市史)를 담당한 사람이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을 박형태로부터 재확인했다.⁵⁵⁾ 즉, 박형태가 기록한 부산방

51) https://en.wikipedia.org/wiki/Shanghai_Symphony_Orchestra/accessed 2021.6.10.

52) 제2장을 참조할 것.

53) 박형태 (1986). 앞의 글, 36.

54)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1). 앞의 책, 289.

55) 제갈삼 (2004). 앞의 책, 39.

송관현악단의 인적 구성에는 오류가 많다. 한편 1939년 4월 『부산일보』에는 부산방송교향악단이 “20여 명의 동호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에서 보기 드물게 “본격적인 악단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전한다. 여기에서 부산방송관현악단은 부산방송국이 운영하는 전문단체는 아니며, “동호회” 성격이지만 상당히 발전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주곡목⁵⁶⁾은 서양 관현악곡 소품과 일본 전통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양합주(和洋合奏)”, 즉 일본식과 서양식이 혼합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연주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인 악장(樂長) 우츠노미야 고조[宇都宮幸三]는 1935년 말, 부산연합청년단 음악부의 재창립 결정⁵⁷⁾에 따라 “이 분야의 권위자”로 초청되어 부산에 온 인물이다. 이 기사에는 “악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20명 규모의 연주단체에는 대개 지휘자를 필요로 하므로 1943년 무렵 김학성이 합류하자 우츠노미야 고조는 지휘자, 김학성은 제1 바이올린 파트의 수석 주자이자 관현악단 연주자를 대표하는 악장(concertmaster)으로 역할을 구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부산방송관현악단 관련 기사
(『부산방송관현악단 오늘 오후 방송』, 『부산일보』, 1939.4.9., 2면.)

부산방송관현악단 활동과 아울러 김학성은 자신의 문하생으로 구성된 “현악합주단”을 운영했다. 김학성은 현악합주단을 통해 “양상벌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였으며, 박형태는 이 단체가 1948년 김학성이 결성하는 부산관현

56) <메가넷토(メガネット)>, <마그다드의 추장>, <에치고지시(越後獅子)> 등으로 추정된다.
57) 釜山聯合青年團音樂部 更生に決定. (1935. 12. 18). 조선신문, 3.

악단의 모태가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⁵⁸⁾

같은 시기, 김학성은 경성후생실내악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경성후생실내악단은 바이올린 김생려, 이용철, 박평수, 첼로 김태연, 트롬본 이유성, 소프라노 김천애, 테너 이인범, 작곡 및 지휘 김성태 등 8명을 주축으로 1942년 5월 설립되었다. 1943년 6월경에는 출연자 수가 40명에 달하는데, 현제명, 계정식 등 음악계 중진들이 참여하면서 점점 조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44년 3월 무렵 김생려를 비롯한 단원들이 만주국 신경악단으로 이동하면서 조직이 개편되었으며, 이때 현제명을 이사장으로 피아노 김원복, 윤기선, 편곡 이흥렬, 바이올린 정희석 등이 참여했다. 이후 정영재, 고영희, 이금봉, 이영세, 유진손, 마금희, 김학상, 김구성, 이금국, 나운영 등이 참여하였으며, 연말 무렵 이규용, 박평수, 김생려, 이인범, 김천애, 김성태 등이 합류했다. 제갈삼은 김학성이 경성후생실내악단에서 활동한 시기를 1942년 6월경, 북경 교향악단에서 돌아온 시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갈삼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당시의 사진은 1944년 5월에 촬영된 것이며, 정영재, 현제명, 정희석, 윤기선, 김학상, 이흥렬, 김영애, 김원복, 고영희, 이금봉, 이광수, 나운영 등이 함께 찍혔다. 이들은 대부분 김생려가 신경악단으로 옮기고 나서 현제명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이 된 이후의 구성원으로 보인다. 또한 이 당시 경성후생실내악단 구성원인 가운데 1944년 9월 12~13일 공연에 출연한 “바이올린 김성 金成”, 그리고 1944년 10월 3일~4일 공연에 출연한 “김구성(제금)”은 김학성(金鶴成)의 잘못된 표기로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⁵⁹⁾ 그렇다면 김학성이 경성후생실내악단에서 활동한 것은 1942~1943년 무렵이 아니라 1944년 전후 얼마간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경성후생실내악단은 후생음악, 즉 민중과 근로자들을 찾아가 명랑하고 건

58) 박형태 (1986) 앞의 글, 36.

59) 명단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김학성은 이름이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지역음악인이라는 점에서 오기의 가능성이 있다. 강태구 (2012). 경성후생실내악단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48, 29-30.

전한 감정을 조성하는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전시 국민의 사기진작과 위안, 증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 점에서 경성후생실내악단은 일제 식민 통치에 부역하면서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음악적 실천을 수행한 단체라 할 수 있다. 김학성이 경성후생실내악단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동경이나 북경에서의 인연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 활동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박형태는 이 시기 부산지역 “후생악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당시 경상남도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일본군 위문과 선무공작의 사명을 띤 십수 명의 한국인 음악가들이 징병 및 징용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보수로 참가하여 경남 일원과 멀리는 만주까지 연주 여행을 다녀야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⁶⁰⁾

인용문에 따르면, 지역음악인이 징병과 징용을 면제받기 위해 무보수로 전국 각지와 만주까지 연주 여행을 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김학성이 어떤 목적과 계기로 경성후생실내악단에서 활동했던 간에 일제에 부역하는 음악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1955년 4월에 개최한 그의 독주회 팸플릿에 수록한 약력에 경성후생실내악단 활동을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이를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⁶¹⁾ 다만, 이 단체의 활동은 전국 각지의 청중을 직접 찾아가 연주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김학성에게 청중을 중심에 둔 음악활동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해방 이후에는 고려교향악단에서 잠시 활동한다. 고려교향악단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현제명을 중심으로 조직된 교향악단으로 미군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제정식, 김생려, 김성태 등 경성후생실내악단 구성원 중 상당수가 이 단체에서 활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김학성 역시 고려교향악단 단원으로 편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후생실내악단에서 활동한 대부분의 음

60) 박형태 (1986). 앞의 글, 36.

61) 우리민요에 의한 제4회 김학성 바이올린 독주회. (1955. 4. 27-28). 공연 팸플릿, 1.

악기들은 해방 이후 고려교향악단뿐만 아니라 여러 연주단체와 대학 교단 등 음악계의 여러 층위에 자리잡음으로써 우리나라 서양음악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해방 후 김학성은 서울 음악계에 남지 않고 부산으로 활동 무대를 완전히 옮긴다.

송죽관현악단, 동보 P.C.L.관현악단, 북경교향악단, 부산방송관현악단, 경성후생실내악단 등 김학성이 식민지시대 국내외에서 경험한 연주단체 활동은 해방 후 부산에서 연주단체를 조직하고 연주활동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김학성은 1947년, 부산방송국의 지원을 받아 부산관현악단을 결성한다. 해방 이후 부산지역 최초의 관현악단이다. 창단 당시 17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지만 전문연주자로서 테크닉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간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 연습을 해야 했으며, 제대로 된 악기도 없는 데다 양상블 경험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재정난과 자재난”을 극복하고 이루어진 부산관현악단의 탄생은 그 자체로 축하할 일이었으며 큰 기대를 모았다.⁶²⁾ 이 단체는 2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신문사의 후원으로 마산, 통영, 진해 3개 도시에서 각각 2회씩 총 6회의 순회연주회를 개최했다.⁶³⁾ 해방기에 다른 지역으로 연주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교향악단은 고려교향악단과 서울교향관현악단⁶⁴⁾ 정도에 불과했다. 이점에서 부산관현악단의 3개 도시 순회연주회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으며, “소편성이기는 하나 본도 초유의 합주운동”으로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⁶⁵⁾

그러나 부산관현악단은 제2회 연주회 이후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였으며 내부적인 쇄신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으로 1949년에는 “열 부족, 돈 부족”으로 연습조차 중단되어 “제1 도시라면 오케스트라쯤 하나 있어야 할텐

62) 부산관현악단 연주를 두고 (1947. 5. 16). 민주중보, 2.

63) 광고-삼도시(三都市) 순회 부산관현악단 대연주회. (1948. 6. 9). 대중신문, 1.

64) 해체된 고려교향악단과 서울관현악단이 함께 한 단체로 해군정훈음악대를 거쳐 오늘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기원이 되었다. 이때는 서울교향관현악단과 서울교향악단이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되었다.

65)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 경상남도지, 중, 1110.

데”라는 안타까움을 사게 된다.⁶⁶⁾ 관현악단 운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용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만하다.⁶⁷⁾ 부산관현악단은 “관현악단을 악극단으로 인식하던 당시의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한국전쟁 이후까지 5회의 정기연주회를 치렀으며, 한국전쟁으로 충무로에서 부산수산 시험장 건물로 피란 온 육군군악학교 연주대(육군본부 군악대)와 제휴해 2관 편성 관현악단으로 개편하였다고 한다. 김학성은 젊은 연주자들을 무질서한 거리 징집에서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악장 자리에 앉고 지휘자의 자리를 당시 육군군악학교 교장 김판기 소령에게 맡겼다.⁶⁸⁾

부산관현악단은 악단의 규모나 악기 등 물적 기반, 그리고 프로그램 면에서 부족함이 많다. 하지만 해방 이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생긴 관현악 단체였으며 인근 지역에서 순회연주회를 개최할 정도로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시기 한국의 교향악단 발전에 미군정 학무국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⁶⁹⁾ 부산관현악단의 존재는 지역에서 자생적·독자적으로 추진한 관현악 연주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표 1>은 해방기 부산관현악단의 연주활동을 정리한 것이다.⁷⁰⁾

<표 1> 해방기 부산관현악단의 연주활동

제목	일시	장소	지휘	프로그램
제1회 발표연주회	1947.5.14.-15	동광국민학교	김학성	<조선민요연곡>, 클래식소품, 현악사중주곡, 테너 독창, 하모니카 트럼펫·바이올린 독주곡 등
제2회 발표연주회	1948.4.16	도립부산극장	김학성	<조선민요 연곡>, 슈베르트 교향곡 “미완성” 일부, 기타 트럼펫 독주곡 등

66) 질식상태에 있는 부산악계. (1949. 7. 25). 음악주보, 84, 1.
 67)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하고 인건비 부담이 높으며, 재생산 시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1회적 특성 등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68) 제갈삼 (2006). 앞의 책, 72. 팸플릿과 기사를 통해 2회의 정기연주회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한국전쟁 이후까지 5회라는 정기연주회 횟수에 관해서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69) 정태수 편 (1992).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1945-1948), 상, 서울: 홍지원, 180-181.
 70)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남영희 (2021). 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141-145.

3도시 순회 대연주회	1948.6.9.	마산시민극장	김학성	<조선민요 연곡>, 슈베르트 교향곡 “미완성” 일부, 테너·소프라노 독창곡 등
	1948.6.10	마산극장	김학성	
	1948.6.11.~12.	통영봉래좌	김학성	
	1948. 6.13.~14.	진주동명극장	김학성	

1948년 김학성은 부산현악사중주단을 결성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현악사중주단이었다.⁷¹⁾ 제1 바이올린 김학성, 제2 바이올린 임문규, 비올라 전성태, 첼로 백경준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족문화 수렵”과 “음악수준 향상”을 지향했다.⁷²⁾ 부산방송국 방송을 통해 창단연주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실제 방송 여부 및 향후의 활동에 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2. 부산음악학교 설립과 후진양성

김학성은 부산에 정착한 1943년 무렵 “서구청 건너편”에서 ‘바이올린의 집’이라는 교습소를 운영했다.⁷³⁾ 훗날 부산에서 “바이올린계의 지도급 인사”로 활동한 임문규, 전성태, 김호현 등이 이곳 문하생이었다고 한다.⁷⁴⁾ 제갈삼은 김학성의 음악교육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김학성 선생은 화음교육(양상블)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주장하면서 1943년 서대신동 전 서구청 건너편에 ‘바이올린의 집’을 개설했다. 선생은 제자들을 지도하는 한편 그들에게 양상블이 음악교육의 바탕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약 20명의 제자들을 주축으로 현악합주단을 편성하기도 했다. 선생은

71) 부산에서 실내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단체는 1949년 부산음악가협회의 배도순이 주도한 현악사중주단이다. 위의 논문, 78-79.

72) 부산현악사중주단 결성. (1948. 4). 문예신문, 53.

73) 당시 부산에는 우츠노미야 고조가 일본인 거주 구역인 서정(西町)에서 운영한 피아노 교습소, 김학성과 거의 같은 시기에 부산에 정착한 김동춘(金東春)이 신창동 동본원사(현 대각사)에 소재한 유치원 내 설립한 성악 교습소가 있었다.

74) 박형태 (1986). 앞의 글, 35-36.

양상블의 기본인 다른 악기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실천에 옮겨 양상블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한 부산 최초의 음악 스승이요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다 가신 분 중 한 분이라 할 수 있다.⁷⁵⁾

이와 같은 음악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토대로 1948년 4월 부산음악학교를 설립했다. 1948년 4월 1일 개교하였으며,⁷⁶⁾ 같은 해 5월 “재일 동포 학교 폐쇄령”에 반대하며 반일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한다.⁷⁷⁾ 개교 전 소재지는 “신창동 1의 34 YMBP 가교사”였으며, 개교 후에는 “부산부 부평동(전화 2804번) 가교사 건국학회 내”로 되었다. 그러나 1948년 8월 학무국에 “공식 설치 인가 수속을 취하지 않은 학교”로 지적되었다.⁷⁸⁾ 1949년 1월 무렵에는 동국음악학교와 병합하여 부산음악전문학교로 새롭게 출범한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재정난 때문에 책임자 자리를 홍일파에게 넘겨주고 “인퇴(引退)”한다.⁷⁹⁾

부산음악학교와 부산음악전문학교의 입학 자격은 중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대학입학자격시험 합격자로 되어있다. 이 점에서 김학성은 지역에서 음악 후속세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음악전문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전공은 성악, 바이올린, 피아노, 작곡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수진으로는 성악 김점덕, 김호민, 정복갑, 피아노 한세우, 작곡 및 피아노 박용식, 작곡 및 이론 윤이상 등 당시 부산음악계를 주도하는 음악인들이 초빙되었다. 아울러 문학인 김요산(김정한), 소설가 김석호, 부산일보 편집국장

75) 제갈삼 (2006). 앞의 글, 71.

76) 학교소식. (1948. 5. 3). 문예신문, 56, 2. 부산음악학교와 명칭이 유사한 부산음악학원은 1948년 2월 20일 오후 6시에 개교했으며, 김학성이 설립한 부산음악학교와 동일한 기관으로 추정된다. 광고-부산음악학원 학생 제군에게 고함. (1948. 2. 20). 부산일보, 2.

77) 반일투쟁위원회 조직코 부산음악학교도 쫓기. (1948. 5. 6). 부산신문, 2.

78) 무인가 학교 진학자는 요주의. (1948. 8. 18). 부산신문, 2.

79) 질식상태에 있는 부산악계. (1949. 7. 25). 음악주보, 84, 1. 1949년 9월에 열린 실내악을 주로 한 음악회 팸플릿에는 신홍대학교 부산예술과 광고가 수록되었는데 “구(舊) 부산음악학교”라 부기되어 있으므로 이는 부산음악전문학교의 후신으로 볼 수 있다. 이 학교는 음악부와 미술부로 구성되어 있다.

백대진, 법학자이자 부산대학교 교수 문홍주(부산대학교 2대 총장 역임), 연극인 남상협 등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도 함께 초빙하여 전인교육과 아울러 예술가로서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했다.

부산음악학교와 부산음악전문학교는 “인가”를 얻지 못했고 “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명칭이나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되는 등 순조롭게 운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교와 관련한 기록은 신문의 학생모집 광고 외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자료의 부족 때문에 실제 학교의 운영이나 전공별 세부 커리큘럼, 수강자 등 다른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언제 폐교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산에 전문음악인을 양성하는 공교육 기관이 없던 때 자생적으로 추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⁸⁰⁾

교육기관의 설립 외에도 김학성은 해방기부터 1950년대 다양한 층위에서 교육활동에 임했다. 부산여대, 동아대 등 대학 강단에 서는 한편, 미국공보원에서 주최한 바이올린과 음악강좌(1949년 8월),⁸¹⁾ 부산YMCA 주최의 종합예술대학강좌(1949년 1월),⁸²⁾ 음악다방의 음악감상회(1955년 12월, 1956년 6월 돌다방)⁸³⁾ 등에서 강의했다. 또한 부산사범학교, 경남공고, 부산상고, 경남고 교사, 혜화여고, 오산중⁸⁴⁾ 등 중등학교 교단에서도 활동했다.

3. 독주회 개최와 지역 음악활동 참여

김학성은 1943년 무렵 첫 귀국독주회를 개최하였으며 1955년까지 총 4회의 독주회를 개최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80) 해방기 부산지역의 음악교육 기관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남영희 (2021). 앞의 논문, 253-265.

81) 음악 강좌. (1949. 8. 14). 부산일보, 2.

82) 광고-종합예술대학 강좌. (1949. 1. 13). 민주중보, 2.

83) 소식. (1955. 12. 2). 부산일보, 2; 문화단신. (1956. 6. 17). 부산일보, 3.

84) 한국전쟁으로 1952년 부산 동대신동 가교사에서 운영되었으며, 1954년 정부의 서울 환도와 함께 서울로 이전하였다.

<표 2> 김학성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현황

공연명	일시	장소	연주곡목	반주	참조출연	비고
귀국 독주회 ⁸⁵⁾	1943년 초(?)	부산좌	드보르작 <유모레스크>, 베토벤 소나타 제5번 <봄>, 사라사테 <찌고이네르바이젠> 등	유함숙	소프라노 조성녀, 테너 엄영섭, 여성사중창	청주, 충주에서 재연(반주 안정숙)
김학성 제금 독주회 ⁸⁶⁾	1949.7. 25~26	동광국민학교 강당	미상	한세우	바리톤 김절덕	
김학성 제금 독주회	1953.4. 7~8	남성여고 강당	베토벤 소나타 제5번 <봄>, 베토벤 로망스 제2번 F장조,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C장조 (번호 불명-필자), “케레 벨라 (Kele Bela) <헝가리 무곡>”, 김학성 편곡 <대한민요 연곡>, 비에나프스키 <백파이프 마주르카(Dudziarz Mazurka)>, 사라사테 찌고이네르바이젠	정정식	소프라노 김춘애	
우리민요에 의한 제4회 김학성 바이올린 독주회	1955.4. 27~28	영남극장	이상근 <작은 소나타>, 김학성 편곡 <풍년가><알 강물 흘러 흘러><농부가><망아타령><사발가와 경복궁타령>, 이상근 <새야새아파랑새아>윤이상 미상-최술문 <아리랑 환상곡>, 바이올린&아쟁 합주 <평조회상>	강수범	가야금-아쟁 박성옥 무용 김춘방 소프라노 김봉임	대한군경원호고등학교 주최

김학성의 귀국독주회는 1943년 초순에 열린 것으로 추정된다. 금수현이 이보다 앞선 1941년 5월에 같은 장소에서 독창회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당시 유학생들의 귀국 독주회 및 독창회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 독주회를 가진 다음 청주와 충주에서 이를 재연했다. 이때 반주를 맡았던 안정숙의 증언에 따르면, “청주와 충주에 절친한 친구들이 그를 반기고 연주회를 적극 주선”하였다고 한다.⁸⁷⁾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김학성은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1950년대까지 꾸준히 독주회를 개최했다는 점에

85) 제갈삼 (2004). 앞의 책, 35-36.

86) 김학성씨 제금독주회. (1949. 7. 14). 민주중보, 2.

87) 제갈삼 (2004). 앞의 책, 390.

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해방기 부산에서 독주회를 개최한 이들은 테너 고태국, 정복갑, 바리톤 김점덕 등 주로 성악가이며, 김학성의 바이올린 독주회는 해방기 유일의 기악 독주회이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 독주회 프로그램에는 김학성의 전통과 지역 작곡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잘 드러나 있다. 부산관현악단 프로그램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우리나라 전통 민요를 김학성 자신이 직접 편곡하여 바이올린 독주로 표현하고 있다. 1955년의 네 번째 독주회에서는 가야금 독주에 시간을 내주는 한편, 아쟁과 바이올린 합주로 전통곡을 연주하기도 했다. 특히 이상근, 최술문과 같은 지역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하는 한편 서양 작곡가들의 곡은 한 곡도 연주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윤이상의 곡도 연주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곡목이 표기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 이때 윤이상은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활동하던 무렵이다.

김학성은 독주회 개최 외에도 부산에서 개최한 여러 음악회에 바이올린 연주자로 출연하거나 음악회 개최에 관여했다. <표 3>은 이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해방 이후 김학성의 음악회 출연 현황

공연명	일시	장소	연주곡목	비고
해방기념공연 '시와 음악과 가요의 성전'	1946.8.15.~16	조선극장	사라사테 <찌고이네르바이젠>	
전재동포 구계음악회	1946.12.22 13:00	동광국민 학교	헨리 비숍 <즐거운 나의 집>, 사라사테 <찌고이네르바이젠>, 슈만 <어린이 정경> 중 "트로이메라이"	만주 안정숙
부산관현악단 제1회 발표연주회	1947.5.14.~15	동광초등 학교 강당	헨리 비숍 <즐거운 나의 집>	
제2회 희망음악 회 '부산음악가 대연주회'	1947.12.3	도립 부산극장	구노 <세레나데>, "케레베라 <헝가리무곡>(알 수 없는 곡. 필자)", 김학성 편곡 <우리 민요 연곡>	

부산예술단체 연합대공연	1948.8.3.~4	부산극장, 한빛극장		관현악부 담당
실내악을 주제로 한 음악회	1949. 9. 16~17	부산미국 공보원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제24번	반주 박지로
시와 음악의 회(會)	1949. 4. 16	동광초등학교 강당	리카르도 드리고 <세레나데>, 사라사테 <찌고이네르 바이젠>	
제1회 시민음악회	1955. 2. 1~2	부산미국 공보원	비에냐프스키 <백파이프 마주르카>	문화회관 설립 기성회
시의 오후	1955.7.29.	부산미국 공보원		경남고 동문회 행사, 찬조출연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의 밤	1955.12.15.~16	남성여고 강당		반주 정에스더
제1회 문학의 밤	1955.12.23	부산미국 공보원		부산문인구락부 행사, 찬조출연
모차르트 탄생 200주년 기념 공연	1956.1.27	대청장 예식부홀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C장조”	
3·1 예술제	1956.3.8		바이올린 무반주 독주, 바이올린&가야금 이중주 <아리랑>, <노들강변>	가야금 박성옥
부산예술문화단체연합회 8·15 기념 예술제전	1956.8.20.~21	부산극장		
해화여중고교 예술제	1957.2.5.~6	삼일극장		찬조출연
동향음악회	1957.1.27	부산미국 공보원	바이올린 독주	부산음악인 동향회(회장 하규한) 주최
김학성, 김천애 2인 음악회	1957.3.11.~12	용사회관 (부산극장 앞)	베토벤 소나타 제5번 <봄>, “스페인 소야곡”, “쓰이루다-쓰(알 수 없는 곡-필자)”, <우리 민요>	반주 정에스더, 1일 3회 또는 4회 연주

해방기념공연 ‘시와 음악과 가요의 성전’, 제2회 희망음악회, 부산예술단체 연합대공연 등은 해방기 부산의 문화예술계를 주도하던 음악가 금수현, 윤

이상, 김호민, 연극인 정진업, 무용가 박용호 등이 결합한 공연이며, ‘실내악을 주로 한 음악회’ 역시 배도순, 정복갑, 윤이상, 김점덕 등 순음악을 지향하던 음악인들과 함께 한 행사였다. 이 공연 후 이들은 부산음악가협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지만, 김학성은 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전쟁 이후까지 김학성의 여러 연주 활동을 살펴보면 순음악(純音樂)을 추구했던 그들과 결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학성은 부산수산과대학 학생회가 주도한 전재동포구제음악회, 혜화여중고의 예술제 등 무대의 격식을 따지지 않고 출연하고 있다. 특히 전자의 경우 모든 출연자가 초·중·고·대학생인 가운데 전문음악인은 김학성이 유일했다. 1950년대에는 연주 프로그램으로 우리 민요를 중요하게 다루는 한편 국악기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였다. 이런 점에서 김학성의 음악적 지향점은 예술지상주의나 클래식이라 불리는 서양 고전음악의 가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음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데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김학성이 연주한 레퍼토리는 정확한 번호를 알 수 없는 모차르트 소나타 C장조, 베토벤 소나타 제5번, 사라사테의 <찌고이네르 바이젠>, 헨리 비숍의 <즐거운 나의 집>, “케레 베라”라는 작곡가의 <헝가리 무곡> 등으로 제한적인 편이다. 연주 난이도는 가벼운 소품부터 고도의 기교를 필요로 하는 곡까지 폭넓다.

4. 부산의 음악교육과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의 편찬

해방기 미군정의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국민의 교육열은 매우 높았다. 교육 수요의 양적 팽창 속에서 교과서의 편찬과 보급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음악교과는 검인정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음악교재가 발간되었다. 당시 학교 현장에서 가장 널리 유통된 음악교재는 중등 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주도로 1946년 5월 1일 국제음악문화사에서 발간한 『임시중등음악교본』이다. 그밖에 김성태의 『코-르 위분겐(고등여학교, 중학

교, 사범학교 음악과용』(국민음악연구회), 이승학의 『중등악전교본』(국민음악연구회), 계정식의 『중등노래교본-초급용』(교회음악연구회), 김순용의 『특선음악교재곡집』(교육음악연구회) 등의 70종 이상의 음악 교본이 발간되어 학교 음악교육의 빈자리를 일정하게 메우는 역할을 담당했다. 부산에서도 여러 층위에서 음악교재가 발간되었다. 경남여중(현 경남여고)과 같은 일선 중등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등사본 교재를 제작해 사용하였으며, 경남음악연구회에서는 1948년 『중등가곡집』을 발간했다. 초등학교 교재로는 경남초등교육연구회 김원녀가 발간한 『노래공부』 1-6권, 김학성이 1950년 발간한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 등이 그 예다. 그밖에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유신이 발간한 동래중(현 동래고)의 등사본 교재, 최술문의 『음악이론교본』이 발간되었다.⁸⁸⁾

김학성은 경남음악교육연구회에서 발간한 『중등가곡집』에 편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편찬위원은 정복갑, 윤이상, 김점덕, 한의성, 박용식, 한상기, 금수현, 최덕해, 김학성, 김호민, 오명룡, 변종택, 김창배, 하규한, 유신, 오우석으로 당시 부산의 중등학교에서 일했던 교사-음악가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머리말이 수록되었다.

해방 후 학교 음악 수준의 진로와 아울러 무수한 음악 출판물이 나왔으나 옳은 교재가 참만히 실린 책은 드물었다. 좋은 노래를 널리 구하는 교사와 학생은 많은 책을 사야 했다. 뿐 아니라 학생이 갖진 책은 통일이 되지 않았다. 이 고충을 적는 우리 “실지 교육자”들은 장차 우리 학교-음악의 나아갈 방향에 가까운 노래들을 구하여야 많은 곡을 추리고 추려 여기 한 권의 책으로써 내어놓게 되었다. 이 책은 금후 악곡 출판에 있어 좋은 품성을

88) 해방기 부산의 음악교육과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른 논문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이 절은 이를 바탕으로 하되 자료를 보완하여 서술하였다. 남영희 (2021). 앞의 논문, 233-252; 남영희, 이순옥 (2020), 해방기 부산지역 음악단체의 활동과 음악극 창작, 향도부산, 39, 372-382. 1950년 김학성이 간행한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의 매체이념과 악곡의 성격, 이 시기 발행된 다른 음악교본과의 차별성 등에 대해서는 고(稿)를 달리하여 논의하겠다.

쌓는 데 적절하며 또 즐겨 부를 수 있는 곡들만으로 짜여져야 할 책의 첫 출발이 되기를 염원하며 남녀 중등학교의 노래책으로써 내어놓는 바이다.⁸⁹⁾

인용문을 통해 해방 후 많은 음악교재가 출판되었음에도 “옳은 교재”는 드물어 좋은 노래를 구하려면 책을 여러 권 사야 하기에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이 학교 음악이 지향하는 바에 적합한 노래들을 골라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는 경과를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에 수록된 노래들은 “좋은 품성을 쌓는 데 적절하며 또 즐겨 부를 수 있는 곡들”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는 한국 작곡가 곡 11곡, 외국곡 15곡으로 총 26곡이 수록되어 있다.⁹⁰⁾

그중 부산지역 작곡가의 작품은 모두 7곡이며, 김학성의 <청춘의 노래>도 그중 한 곡이다. 가사는 부산사범학교 국어 교사이자 지역의 문인 이승자(李崇子)의 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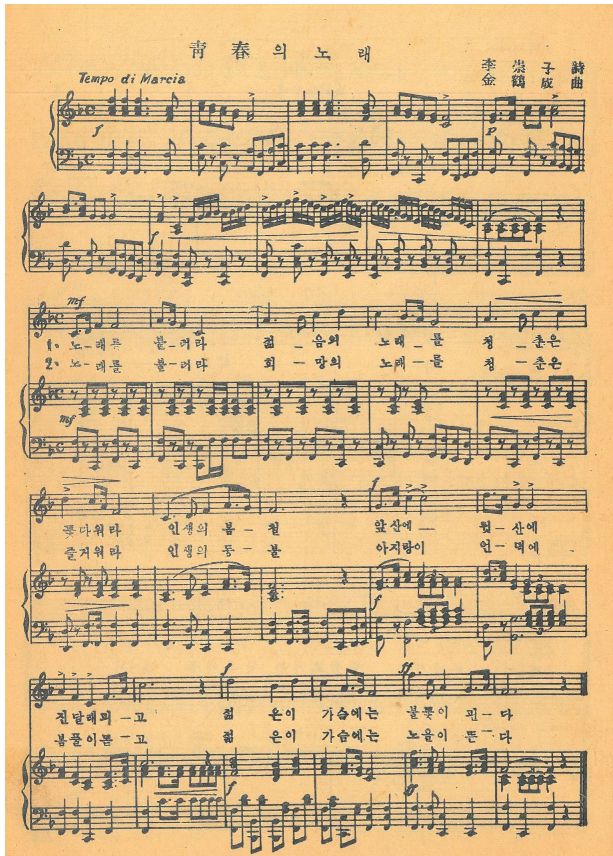
노래를 불러라 젊음의 노래를
청춘은 꽃다워라 인생의 봄철
앞산에 뒷산에 진달래 피고
젊은이 가슴에는 불꽃이 핀다

노래를 불러라 희망의 노래를
청춘은 즐거워라 인생의 등불
아지랑이 언덕에 봄풀이 돋고
젊은이 가슴에는 노을이 뜬다

노랫말이 봄날과 같은 청춘을 예찬하고 청년의 희망을 분돋우는만큼 4/4 박자 리듬에 F장조를 사용하였다. 빠르기말도 “행진곡 빠르기로(Tempo di Marcia)”로 지정되어 경쾌함을 더한다. 복잡한 기교나 변화도 없어 노래가 쉽고 간결하며 안정적이다. <그림 2>는 책에 수록된 원 악보다.

89) 경남음악교육연구회 엮음 (1948). 중등가곡집. 부산: 전음사.

90) 남영희 (2021), 앞의 논문, 233-241.



<그림 2> 이승자 시, 김학성 작곡 <청춘의 노래> 악보

『중등가곡집』이 공동 저작물이라면, 단독으로도 2권의 교재를 펴냈다. 1948년 발간한 『특선가곡집』은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 1950년 발간한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은 김학성이 100곡의 노래를 직접 선곡하여 엮은 책이다. 권두시⁹¹⁾에 밝힌 책의 발간 취지는 지금까지 출판된 책들이 대개 20-30곡만 수록하고 있어 책 한 권만으로는 “하고 싶은 노래”를 다 찾아볼 수 없어서 100곡의 노래를 엮었다는 것이다. “다른 학과를 공부하는 동안에

91) 김학성 편 (1950).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 향토문화협회.

재미스러운 노래를 사전처럼 볼 수 있는 <노래 모음>을 고려했다고 하니 음악을 목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음악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김학성은 수록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지 않았다. 장(章)으로 나누거나 노래에 일련번호를 붙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를 전통적 창작동요, 새롭게 창작된 동요, 해방가요와 의식곡, 창작가곡, 외국곡, 전래동요, 기타로 분류하면 <표 4>와 같다. 원천 텍스트에는 작사가, 작곡가 표기가 누락된 것이 많으며, *표시는 필자가 보완한 것이다.

<표 4> 김학성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 수록곡 목록

수록 순서	구분	곡명	작사	작곡
2	전통적 창작동요 (31곡)	오빠생각	최순애	박태준
9		산바람 강바람	윤석중	박태현
10		어깨동무	*윤석중	
11		어린 음악대	*김성도	*김성도
14		산새	목일신	김성태
15		반달	윤극영	윤극영
17		고추 먹고 맵맵	윤석중	박태준
21		동리의원	김귀환(*윤복진 필명)	홍난파
24		누가 누가 잠자나	*목일신	박태현
25		낮에 나온 반달	윤석중	홍난파
26		봄날	박영하	박태철
27		하늘구경	*윤극영	윤극영
28		설날	*윤극영	윤극영
29		진달래	*엄홍섭	*정순철
31		할미꽃	*홍난파 편	윤극영
32		어머니 가슴	박을송	홍난파
35		돌다리	신고송	*홍난파
39		해 지는 강변	*목일신	윤이상
42		도레미파	*홍난파	*홍난파
44		하모니카	윤복진	*홍난파
46		강아지래요	김성도	김성태
47		고드름	버들쇠(*유지영 필명)	*윤극영
48		밝안 가락님	*정상규	*홍난파
51		작은별	*홍난파	홍난파
52		조희배	*김광윤	*홍난파

53		푸른숲을	*복일신	윤이상
56		기러기(이부)	*윤복진	박태준
63		물새발자욱	*윤복진	박태준
71		부슬비(이부)	최계락	이상근
76		나비 노래	이은상	이흥렬
77		깜박깜박	윤복진	박태준
3		기차	홍은순	박태현
5		새나라의 어린이	*윤석중	*박태준
16		엄마 생각	홍은순	한샘
18		은실비 금실비	(*노래동무회 추정)	(*노래동무회 추정)
19		나는 잘해요		
22		누가 제일 잘하나		
23	새로운 창작동요 (15곡)	봄비	*홍은순 추정	박태준
33		별나라	홍은순	한샘
37		불조심	홍은순	한샘
38		줄넘기	홍은순	김성태
45		전선줄 전거장	홍은순	박태준
59		구름	홍은순	김성태
61		스케팅		
65		봄이 왔다고	홍은순	윤극영
75		어린이행진곡	신영숙	윤용하
1		해방가요· 의식곡 (10)	애국가	
30	우리말 우리글로			김성태
36	독립행진곡(이부합 창)		박태원	김성태 곡, 김형근 편
43	한글노래		*이극로	채동선
73	앞으로 나가자		김용호	박태준
78	어린이날		어린이날 전국준비위원회 선과 선곡	
83	소년소녀 행진곡		최선	김형근
84	건국의 노래		*김태오	라운영
86	응원가		이원수	김성태
92	삼일운동의 노래		박종화	김순애
34	창작가곡 (9곡)	꽃밭	*권중찬	*안기영
40		물새	이은상	안기영
49		고향 생각	*정사인	*정사인(북한에서는 김일성)
50		미풍(이부)	이은상	박태준
66		그리운 강남	김석송	안기영
69		성불사의 밤	이은상	홍난파
85		금강에 살으리랬다	이은상	홍난파
95		삼살개		

100		무궁화	*박세영	안기영
4		종달새		*미국노래
41		클레멘틴	*박태원 번안	*미국노래
55		피꼬리(이부)	*홍난파	*F. Hullur
58		월계꽃	*윤기성	슈베르트
60		기쁨의 노래	*화암(박용구 아호)	베토벤
62		고향의 어머니(이부)	*국정효	*오-드웨이(*J. P. Ordway)
64		모차르트의 자장가		모차르트
67		로렐라이	*독고선 역사(易辭)	*질허(P. F. Silcher)
68		빼꾸기(삼부름창)	*박용구 역사	*슬로바키아 노래
70		즐거운 나의 집(이부)	*김재인 역사	비쇼프(*H. R. Bishop)
74	외국곡 (21곡)	망아지	풍강 역사	*J.W.Elliot
82		불어라 봄바람	홍난파	스필먼(*J.E.Spillman 작, C.H.Gabriel 편)
87		인사	풍강 역사	H. 프레이스—썸슨
88		시골 음악대	홍난파	*Carl Maria von Weber
89		수남이 바보		*J.W.Elliot
90		자장가	홍순혁	슈베르트
93		개선행진곡		베르디
94		빼꼭새 왈츠	한갑수 역	*J.E.Jonasson 곡, 김학성 편곡
96		양춘가절		헝가리 민요
98		즐겁게 부르자		모차르트
99		이 몸이 새라면	*안병원 번안	독일민요
6	전래동요 (2곡)	새야 새야 파랑새야	전래동요	나운영 편
7		달아 달아	*전래동요	
8		문자보급가	*이은희	*구왕삼(홍난파로 잘못 표기)
12		시계	*김귀주	*김영환
13		시내물		
20		운직		박순애
54		저녁바다		
57	분류불가 (12곡)	눈		
72		달마지	박월난	이민상
79		어서 나가세	페이지 걸락	
80		졸업식 노래	페이지 걸락	
81		자장가	페이지 걸락	
91		어머니의 사랑		
97		김치 깎둑이		

『노래모음』은 1950년 한국전쟁 직전에 발간되었다. 문화예술계가 어느 정도 우파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의 시점이지만, 윤복진, 안기영, 신고송, 이극로, 박세영, 엄홍섭 등 좌익 문인과 작가의 작품도 가리지 않고 수록했다. 윤이상, 이상근과 같은 부산의 지역 작곡가들의 곡도 수록되었다. 윤이상이 목일신의 동시에 붙인 <푸른 숲을>, <해지는 강변>은 1938년 발간한 윤이상의 첫 작곡집 『동요작곡집』에 수록된 곡이며,⁹²⁾ <부슬바>는 아직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근의 첫 작곡집 『진달래』(1948, 마산여중 학우회)에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록곡은 장조의 곡목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대개 두 도막 또는 세 도막의 기본적인 가요 형식에 쉬운 리듬과 멜로디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쉽게 따라부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면 중간중간에 가사의 내용과 연동되는 그림을 넣음으로써 단조로움을 덜고 보는 재미를 더하였다. 박자표와 임시표 누락과 같은 오기가 더러 눈에 띄지만 쉬운 노래를 통해 음악의 기초를 다지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교재가 부족했던 시절, 음악교양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⁹³⁾

IV. 나가며

김학성은 해방 무렵부터 1950년대 부산 음악사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바이올린 연주자, 연주단체 설립자, 음악 전문교육기관 설립자 등 다양한 층위에서 활동했다.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다수의 음악회에 출연하는 한편 꾸준히 독주회를 개최했다. 해방 이후 부산지역 최초의 관현악단인 부산관현악단을 창설하여 관현악운동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 전문교육기관 부산

92) 윤이상 (1938). 동요작곡집. 서울: 광흥사. 이 책에는 임찬(林讚) 요(諭) <꽃밭에서>, 이은상 요 <우리 유치원>, 김유식(金兪植) 요 <봄구경 가자>, 김영일 요 <비행기> 등 19곡이 수록되어 있다.

93) 『노래모음』을 통한 노래의 정전화 양상에 대해서는 고(稿)를 달리해 논의할 예정이다.

음악학교를 설립하여 전문음악인 양성을 도모했으며, 초등용 100곡집 『노래 모음』과 같은 음악교재를 편찬하여 음악 교양의 확산에도 기여했다.

이처럼 여러 층위에서 열정적으로 이루어진 그의 음악활동을 통해 그가 지녔던 음악적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연주자로서 그는 예술지상주의에 갇히거나 서양 고전음악의 가치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민요를 직접 편곡하여 여러 무대에서 즐겨 연주했고, 가야금, 아쟁과 같은 국악기와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함으로써 우리 음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했다. 이상근, 최술문과 같은 지역 작곡가의 작품 연주에도 관심을 두었다. 1955년에 개최한 제4회 독주회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의식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김학성이 단명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실천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을 것이다. 무대를 가리는 법도 없었다. 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나 문인협회, 동문회 등의 행사에도 기꺼이 찬조 출연하여 연주를 들려주었으며, 피아노 반주가 없는 독주도 서슴지 않았다. 여러 장르의 예술인들과 깊은 교분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혹자는 이러한 김학성의 연주활동을 두고 실력부족, 연습부족, 레퍼토리의 편협함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김학성은 높은 수준의 음악, 삶과 동떨어진 음악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음악, 청중이 좋아하는 음악, 청중이 필요로 하는 음악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관현악단의 창단과 전문음악인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부산음악학교의 설립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경험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음악적 실천으로 승화시켰다. 김학성이 주도하여 1947년 설립한 부산관현악단은 해방 이후 최초로 부산에 설립된 연주단체였다. 식민지시대에도 부산에는 부산방송관현악단과 같은 연주단체가 있었지만 일본인이 함께 활동한 단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만 구성된 연주단체로서도 처음일 것이다. 제대로 된 악기나 연습 시설 등 인프라도 열악한 데다 양상불 경험도 없는 연주자들을 규합하여 연주회를 개최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학성은 2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했고, 인근 지역에서 6회의 순회 연주회를 개최하는 기획력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한국전쟁기 육군군악학교와 결합하여 명맥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훗날 부산의 관현악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1962년 창단한 부산시립교향악단⁹⁴⁾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 최초의 시립 교향악단이며, 1981년 성음실내악단으로 시작한 민간 교향악단 부산관현악단은 2003년까지 25년간 80여 회의 공연을 치렀다.⁹⁵⁾

김학성은 1948년 전문음악인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부산음악학교를 설립했다. 이 학교는 성악, 바이올린, 피아노, 작곡의 세부 전공을 두었으며, 실력있는 음악인들과 인문학자, 연극인, 문학인 등으로 교수진용을 갖추으로써 음악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훗날 이 학교는 동국음악학교와 통합하여 부산음악전문학교, 신홍대학교 부산예술과로 변화한다. 실제 커리큘럼이나 운영 현황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재정난과 한국전쟁 발발로 언제 폐쇄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에 전문음악인을 양성하는 공교육 기관이 없던 때 자생적으로 추진한 시도였으며, 전문성과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학성이 1950년 발간한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에도 김학성의 음악적 지향점이 잘 드러나 있다. 김학성이 골라 엮은 노래는 대개 두 도막 또는 세 도막의 기본 가요 형식으로 따라부르기 쉬우며 삽화를 넣어 재미를 더했다. 기보상의 오류는 다소 있지만 노래를 통해 음악의 기초를 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재라는 점에서 음악교양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다.

김학성의 삶과 음악활동은 여러 층위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부침이 많았다. 열정과 의지는 충만했지만 중단되거나 결실을 맺기 어려웠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식민지시대와 해방기, 한국전쟁과 전후 시기라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굴곡진 시대였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48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짐으로써 제대로 꽃피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94) 이를 주도한 이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 오태균(1922~1995)이다.

95) 최삼화 (2017). 부산관현악단의 발자취. 부산: 샘뮤직, 234. 이를 주도한 이는 유효석이다.

그럼에도 김학성은 폭넓은 경험과 남다른 열정을 토대로 꾸준히 음악적 실천을 해 나간 음악인이었음은 분명하다.

지역에서 활동한 한 음악인의 빛바랜 삶을 종합적으로 갈무리하는 일은 비단 해당 음악인의 삶과 성과를 재조명하거나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점에서만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음악인의 삶은 그가 살았던 시대와 지역을 보여주며, 그의 음악활동을 통해 당시의 음악사회를 조망할 수 있다. 수많은 지역음악인들의 다채로운 삶과 음악활동이 적극적으로 갈무리될 때 이들의 삶과 음악활동은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넘어 보편성을 획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음악사를 더욱 풍성하게 구성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부산, 김학성, 부산관현악단, 부산음악전문학교,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

[참고문헌]

- 3·1 예술제 촌감. (1956. 3. 11). 부산일보, 4.
- K엠 생 (1949. 9. 18). 음악회 참관기. 자유민보, 2.
- 강태구 (2012). 경성후생실내악단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회, 48, 5-54.
- 경남음악교육연구회 엮음 (1948). 중등가곡집. 부산: 전음사.
-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 경상남도지. 중권.
- 계간 한글문예 발간. (1956. 1. 5). 부산일보, 4.
- 광고-부산음악학원 학생 제군에게 고함. (1948. 2. 20). 부산일보, 2.
- 광고-삼도시(三都市) 순회 부산관현악단 대연주회. (1948. 6. 9). 대중신문, 1.
- 광고-종합예술대학 강좌. (1949. 1. 13). 민주중보, 2.
- 금수현 (1989). 나의 시대 70. 서울: 월간음악출판부.
- 김학성씨 제금독주회. (1949. 7. 14). 민주중보, 2.
- 김학성 편 (1950).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 서울: 향토문화협회.
- 김학성 제금독주회. (1953. 4. 7-8). 공연 팸플릿.
- 김학성 (1956. 1. 20). 세계최고의 바이얼니스트 Paganini의 얘기, 한글문예, 창간호, 29-30.
- 남영희 (2021). 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예술 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 남영희, 이순욱 (2020). 해방기 부산지역 음악단체의 활동과 음악극 창작. 향도부산, 39, 359-410.
- 노동은 (1989). 한국 민족음악 현단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모오찰트 200주년 기념음악회를 듣고 (1956. 2. 1). 부산일보, 4.
- 무인가 학교 진학자는 요주의. (1948. 8. 18). 부산신문, 2.
- 문화단신. (1956. 6. 17). 부산일보, 3.
- 박원표 엮음 (1966). 개항구십년. 부산: 태화출판사.
- 박형태 (1986). 음악계의 뿌리와 맥. 산어울, 7. 부산: 부산전문대학. 35-41.
- 반일투쟁위원회 조직코 부산음악학교도 쫓기. (1948. 5. 6). 부산신문, 2.
- 부산관현악단 연주를 듣고 (1947. 5. 16). 민주중보, 2.
- 부산관현악단 제1회 발표연주회. (1947. 5. 14.-15). 공연 팸플릿.
- 부산관현악단 진용강화 재출발. (1948. 10. 25). 음악주보, 69, 1.
- 부산악단 점경 상-연주단체와 연주인 푸로필. (1956. 2. 22), 부산일보, 4.
-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1). 부산시사. 제4권. 부산: 부산직할시.
- 부산현악사중주단 결성. (1948. 4). 문예신문, 53.

- 소식. (1955. 2. 9). 부산일보, 2.
소식. (1955. 12. 2) 부산일보, 2.
시민음악회 개최. (1955. 1. 30). 부산일보, 4.
시와 음악의 회. (1949. 4. 16). [공연 팸플릿] .
실내악을 주로 한 음악회 팸플릿. (1949. 9. 16.-17). 공연 팸플릿.
예술소식. (1948. 10. 25), 음악주보, 68, 1.
우리민요에 의한 제4회 김학성 바이올린 독주회. (1955. 4. 27-28). 공연 팸플릿.
유신 (1996). 해방 후 이십년의 부산음악. 박원표 엮음. 개항구십년. 부산: 태화출판사, 315-324.
윤이상(1938). 동요작곡집. 서울: 광흥사.
음악 강좌. (1949. 8. 14). 부산일보, 2.
음악비하한 음악애호가 음악적 인생 체험 21-김학성씨 타계와 김향춘씨 추모공연. (1989. 10. 28). 부산일보, 9.
음악시간소개. (1948. 2. 1). 음악주보, 57, 4.
이경분 (2012). 식민지조선의 음악문화에 나타난 쇼와천황의 청각적 이미지. 인문과학, 96, 209-244.
이인성(李仁成) (1948. 5. 10). 음악단평－민족음악의 분위기. 문예신문, 57, 1.
인사. (1948. 11. 25). 음악주보, 70, 4.
전병재 (1983). 한국사회와 음악문화: 음악사회학 시고 인문과학, 49, 187-201.
전재동포구제음악회. (1946. 12. 22). 공연 팸플릿.
정태수 편 (1992).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1945-1948). 상권. 서울: 홍지원.
제2회 희망음악회 부산음악가 대연주회. (1947. 12. 3). 공연 팸플릿.
제갈삼 (2004). 초창기 부산음악사. 부산: 세종출판사.
제갈삼 (2006). 잊을 수 없는 음악인과 음악회, 부산: 세종출판사.
제갈삼 (2007). 부산, 경남지역의 음악문화유산과 그 궤적. 부산: 세종출판사.
질식상태에 있는 부산악계. (1949. 7. 25). 음악주보, 84, 1.
최삼화 (2017). 부산관현악단의 발자취. 부산: 샘뮤지.
최현식 (2015). 다풍지대의 사상과 노래-해방기 김상훈 시의 문화정치학. 인문과학, 103, 157-194.
학교소식. (1948. 5. 3). 문예신문, 56, 2.
한글문예사 (1956). 한글문예. 창간호.
해방기념공연 시와 음악과 가요의 성진. (1946. 8. 15-16). 공연 팸플릿.
행동하는 음악가2인 음악회를 듣고 (1957. 3. 17), 부산일보, 4.

釜山聯合青年團音樂部 更生に決定. (1935. 12. 18). 조선신문, 3.

<https://www.shochiku.co.jp>

<https://ja.wikipedia.org/wiki/東宝映画>

https://en.wikipedia.org/wiki/Shanghai_Symphony_Orchestra

[국문초록]

이 논문은 부산 음악인 김학성의 삶과 음악활동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그의 음악적 지향점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의 성과 위에 일문 『부산일보』를 비롯해 지역에서 발간한 여러 매체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부산 음악인의 회고와 자서전, 관찬 자료 등을 두루 검토하여 그의 삶과 음악활동을 재구성하였다. 김학성은 해방 무렵부터 1950년대 부산 음악사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바이올린 연주자, 연주단체 설립자, 음악 전문교육기관 설립자 등 다양한 층위에서 활동했다. 연주자로서 그는 예술지상주의에 간히거나 서양 고전음악의 가치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민요를 직접 편곡하여 여러 무대에서 즐겨 연주했으며 국악기와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함으로써 우리 음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했다. 이상근, 최술문과 같은 지역 작곡가의 작품 연주에도 관심을 두었다. 김학성은 1947년 부산관현악단을 창단하였으며, 1948년 전문음악인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부산음악학교를 설립했다. 쉽고 간결한 노래를 엮어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을 편찬함으로써 음악교양의 확산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김학성의 음악활동은 식민지시대, 해방기, 한국전쟁과 전후시기라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굴곡진 시대에 이루어졌으며, 48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짐으로써 제대로 꽃피우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김학성은 폭넓은 음악적 경험과 남다른 열정을 토대로 꾸준히 음악적 실천을 해 나간 음악인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음악인의 빛바랜 삶을 갈무리하는 일은 음악가 개인의 성과를 재조명하는 데서 나아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지역 음악사회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므로 국가음악사를 풍성하게 구성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Abstract]

Kim Hak–Sung’s Life and Music Activities

Nam, Young He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rehensively present the life and musical activities of Busan musician Kim Hak-sung. Kim led the music society of Busan from the time of liberation to the 1950s. He was active at various levels, such as a violinist, a founder of a performance group, and a founder of a music education institution. As a violinist, he was not confined to artistic supremacy or pursued only the values of Western classical music. Rather, he arranged and enjoyed Korea’s songs on various stages and tried to rediscover the value of domestic music by experimenting with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He was also interested in performing works by local composers such as Lee Sang-geun and Choi Sul-moon. Kim founded the Busan Symphony Orchestra in 1947 and established the Busan Music College,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for nurturing professional musicians in 1948. He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music education by compiling a collection of 100 song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weaving easy and concise songs. However, Kim's musical activity were done during the most turbulent times in Korea's modern history: the colonial era, the liberation period, the Korean War and the post-war period. Nevertheless, it can be said that Kim Hak-sung is a musician who consistently practiced music based on his extensive musical experience and extraordinary passion. Capturing the faded life of a local musician is valuable in that it will become a material that enriches the history of Korea's national music as it not only re-illuminates the individual musician's achievements, but also reflects the era, region, and music society in which he lived.

[Keywords] Busan, Kim Hak–Sung, Busan Symphony Orchestra, Busan Music College, *100 Songs Collec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논문투고일: 2021년 7월 19일 / 논문심사일: 2021년 8월 5일 /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6일

[저자연락처] eunice@pusan.ac.kr